

시멘트工業의發展은 輸送隘路解決에 있다

韓 相 鎔

빠스를 기다린다. 제발 기다리는 빠스에 앉아서라도 갈수만 있다면야——그러나 내가 이 停留場에서 座席빠스를 좌석빠스로 利用해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滿員빠스에 비비작 비비작 올라탄다. 비비작 거리면서도 오르기만 한것도 多幸이다. 大部分의 빠스는 始發點에서 부터 콩나물 시루가 되어 어지간한 停留場은 그냥 지나쳐 버리니 말이다.

하여튼 가까스로 올라탄다. 여기저기서 悲鳴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의 五萬相이 물결친다. 이때 내 구똥등 위에 낫 모를 아가씨의 보죽한 털이 어쩔수 없이 내려 쫓힌다. 어느 映畫에선 가 볼 수 있었던 男과 女의 情感交換의 한 “씬”이 생각나기 前, 내 팔꿈치는 그녀의 등을 억세게 밀어치킨다. 神士淑女가 없고 長幼가 있을 수 없다. 1時間 남짓해 빠스에서 내릴때 遊擊訓練 이라도 하고난 기분이다.

허둥지둥 출근부에 人事하고 “펜”을 잡았으나 핏발서린 팔목은 腦神經의 指示에 무척 鈍하다. 茶房으로 내려간다. 커피를 마시며 心身을 푸는 동안 雜談은 必要以上으로 길어진다.

서울市內 交通難은 꽤 오래전부터 그 解決策이 모색되어 왔으나 別 보족한 수가 없는 모양이다. 爲政者나 “마이카”族에게는 「交通地獄」이란 말이 글자 그대로 彼岸의 世界로 關心밖의 일이다. 그래서 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겠다고 百聞이 不如一見이라 하여 어느날 한 나라가 滿員빠스에 乘車한 것을 매스컴은 別 것이나 되는 것 처럼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우리같은 庶民이 每日 朝夕으로 그 以上の 亂을 겪지 않을수 없는 處地를 못 免하는 것을 恨하는 것은 아니지만 賢明多情 慈愛하신 우리 洋灰業界

의 웃어른들께 當身 羊들의 苦情을 사죄어 昐직도 하렸다.

아침 出勤때마다 國營企業體나 市中銀行의 “디럭스” 通勤빠스에 同輩의 “셀러리 맨,,이 停留場에 초라하게 서 있는 나를 觀光이나 하는 것 처럼내려다 보는 것이 부러워서가 아니고 내 옆에서 있던 아가씨가 「×표간장」, 「××빵」 會社車에 보라는 듯이 攆총뛰어 오르는 것이 비위에 거슬려서가 아니다. 시멘트 會社하면 그래도 個 會社가 國內에서는 大企業列에 充分히 屬한다. 그리고 이러한 巨大한 시멘트 産業은 그의 協同精神과 團結力이 他産業의 追從을 絶對不許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屈指의 産業의 構成員이 된 것을 忝으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내들이 「×표간장」의 通勤빠스가 뿌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난 다음의 착잡한 心境을 어떻게 表現해야 좋을지?

이때 「鈍識」이는 그 못난 머리로도 제법 무얼 생각하고 있다가 히죽 웃는다.

各 메이카에서 빠스를 한臺씩 차출하여 共同運行한다. 아침 出勤時間이면 영등포, 신촌, 불광동, 이문동, 수유리등 八方에서 中心街로 들어온다. 달리는 빠스에는 8개社의 商標가 둘러있고 그속에는 8家族이 모여 오손도손 얘기한다.

어느 따스한 봄날 「鈍識」이 옆에는 「미쓰별표」가 앉아있고 「카·스테레오」에서는 歌劇 「카발레리아·루스티카나」中에서 「오렌지 꽃잎은 바람에 날리고」가 들려온다.

어른님들, 珧가루의 輸送만이 問題가 아니고 사람 실어나르는 輸送문제도 急하다 아뢰웁니다. (大韓洋灰工業株式會社企劃室參事)